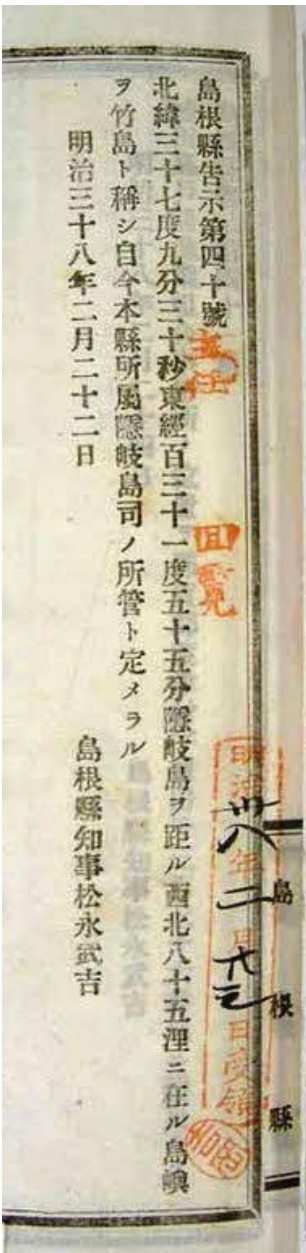


일본 영토인데도 갈 수 없는 섬 ‘다케시마’

2월 22일은 ‘다케시마의 날’ 입니다.

다케시마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국제법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.



← 일본정부는 다른 나라가 다케시마를 점령하지 않고, 그리고 일본사람들만 강치를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, 1905년 1월에 내각은 회의에서 다케시마 편입을 결정하였습니다. 이를 근거로 시마네현은 같은 해 2월 22일에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오키군이 관할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.



↑ 조례가 가결된 시마네현 의회의 장면.

시마네현 공고가 선포된지 100년이 지난 2005년에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‘다케시마의 날’로 정했습니다.



‘홍보탑’(JR 마쓰에 역 앞).



이에 따라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에 ‘다케시마의 날’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

←‘다케시마의 날’ 기념 행사.